

두경부 영역의 원인불명전이암에서 치료와 예후인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노종렬 · 권택균 · 이상준* · 김대우 · 문일준

배 경 :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험을 통해 두경부의 원인불명전이암에서 치료 특히 선행 화학요법의 유용성과 예후인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방 법 : 1995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와 내과에서 원인불명전이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45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남성 39명, 여성 6명이고 평균나이는 56세였다. 이중 편평상피암종 19례, 선암종 6례, 기타 20례이었다. 전이가 없었던 례가 31명, 전이가 있었던 례가 14명이었고 상쇄골림프절전이는 3례에서 보고되었다.

결 과 : 4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고, 전신전이가 없었던 환자의 2년 생존률은 61%였고, 전신전이가 있었던 환자의 2년 생존률은 33%이었다. 전신전이가 없었던 환자중 행항암요법을 시행한 그룹의 경우 2년 생존률이 66%로 보고되었고 선행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의 경우 69%이

었다. Local control rate는 선행항암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41%였고 시행한 그룹은 57%였다. 전신 전이율 역시 각각 25%, 16%로 양 그룹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된 환자의 2년 생존률은 67%였고 선암종의 2년 생존률은 33%였다. 편평세포암종의 경우 진단당시 21% 전신전이가 있었는데 반해 선암종의 경우 83%에서 전신전이를 보였고 쇄골림프절전이가 있었던 3례 전부에서 전신전이를 보였다. 경부 병기가 N2b보다 좋은 경우 2년 생존률이 71%였고 N2b와 같거나 나쁜 경우 55%였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중 하나의 치료만을 시행하였을 경우와 둘다 시행하였을 경우 각각 66%, 83%이었다.

결 론 : 두경부 영역에서 선행화학요법은 생존률이나 전신전이률등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전신 전이가 없을 경우 국소 치료가 추천되며, 전신전이, 상쇄골림프절전이, 선암종등이 예후가 나쁘다.